

현역 컷오프 광주만 적용... 현역도 신인도 불만

국민의당 공천작업 시작부터 삐걱

국민의당 공천작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일 공천 면접을 시작했으나 '최종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할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이 오전 면접에 불참하는 등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천 시행세칙을 두고도 현역 의원 그룹이나 원외·신인 그룹이 저마다 불만을 드러내는 등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전윤철 공천위원장은 이날 공천 면접 오전 일정에 불참, 이해영 부위원장이 대신 진행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공천을 둘러싼 내부 알력 때문이라는 설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광주 공천을 두고 전정배 대표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당선 가능성에, 전 대표는 혁신 공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결정된 공천 시행세칙을 두고도 현역은 물론 정치 신진 세력들이 저마다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컷오프 조항 자체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더민주를 탈당한 인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당 안팎에서는 컷오프 대상 후보 명단이 떠도는가 하면 이들의 재탈당 및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치 신인 및 원외 그룹에서는 당 지도부가 과감한 '물갈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리더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당다운 참신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혁신 공천 경쟁에서 밀린다면 여론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컷오프 대상자가 1~2명에 그친다면 '무늬만 물갈이'라는 민심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예비후보들의 '호남 쏠림' 및 '수도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영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남은 인력이 너무 많고 수도권은 너무 없다. 거기

지도부 광주 공천 놓고 이전 컷오프 명단·재탈당설 뒤송송 김동철 오늘 광산갑 출마 선언 6일 광주 면접, 14일부터 경선

있는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왔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호남 현역의원 수도권 진출론을 다시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현역 의원 물갈이와 관련, 시·도별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해 컷오프(공천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이 6명인 광주지역에만 컷오프가 실시될 예정이고, 의원 숫자가 5명 미만인 다른 시·도는 컷오프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또 컷오프 대상도 1~2명으로 줄여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대신 공천 면접심사 과정에 도덕성·개혁성·의정활동능력·경쟁력·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을 면밀 평가해 한 항목이라도 D이하 점수가 나오면 탈락시키는 과락 제도를 도입하고,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다른 당보다 높은 25%를 부여해 현역 물갈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9일까지 시·도별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하며, 광주지역 면접은 오는 6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처럼 현장 공개면접 방식을 도입해 공천관리위원 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자격심사와 컷오프, 면접, 전략공천 여부 등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불출마 등을 고려했던 김동철 의원(광산갑)은 2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광주 광산 갑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임동욱기자 tuim@



“공정한 공천” 국민의당 전윤철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전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부터 천칭을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기·목념 퍼포먼스... 중진·86 예비후보들 돌발질문에 진담

더민주 서울지역 24개 선거구 예비후보 60명 공천면접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지역 24개 선거구의 예비후보 60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도 전날 광주·전남지역에 이어 이틀째 인터넷 생중계됐다.

이날 면접에서 일부 예비후보는 피켓을 몸에 두르고 자기소개를 하고, 3·1절에 착안해 태극기를 흔들다가 하연 목념하는 퍼포먼스까지 하는 등 공관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등장했다.

최연소인 유병훈(27) 예비후보는 개주일 복장이었고 김갑수 후보는 미국 애플사(社)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차림으로 면접에 임했다.

공관위원들은 “안중근·윤봉길 의사의 행적에

대해 말해보라”, “조선시대 송시열은 간신이나, 충신이나”는 돌발질문을 해 후보들의 진담을 뺐다.

공천경쟁이 치열한 지역인 만큼 예비후보들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유인태 의원이 공천 배제된 도봉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예비후보가 “박원순의 성공은 천준호의 성공이었다”, “유인태의 적자가 천준호다”라며 ‘박원순·유인태 마케팅’을 펼쳤다.

국민의당 출현으로 수도권의 위기감이 커진 것을 반영하듯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질문과 언급이 적지 않았다. 안 대표의 지역구인 노원병에 출마한 황창화 예비후보는 안 의원의 더민주 탈당 회견 화면을 띄운 뒤 “안 의원의 탈당 명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각을 세웠고, 같은 지역 이동학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는 서민의 절박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자신을 부각했다.

공관위원들은 중진 의원과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예비후보들에 대해 좀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는 듯한 분위기도 풍겼다.

5선의 은평갑 이미경 의원은 세대교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중진의 경력이 꼭 필요할 때도 있다. 무조건 중진 용퇴론이나 힘지 출마는 한국정치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북을 기동민 예비후보는 “(더민주)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의사소통 방식이 잘못됐다”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종인 “위안부 협상 현재로서선 고칠 여건 안돼” 햇볕정책 보완 발언 이어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일, 지난해 말 탈퇴한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일단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현재로서선 고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손잡기 정의기억재단 설립 기금’ 전담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협상을 조속하게, 급작스럽게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은 할머니들의 쓰러린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위안부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재협상을 촉구해온 당의 입장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달 취임 후 더민주가 공개적인 언급을 꺼려온 ‘북한 궤멸’, ‘햇볕정책 보완’ 발언 등을 잇따라 내놓아 정세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대표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녀상은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지키겠다고 하는 한 정부가 쉽게 다른 곳으로 못 옮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창당 한 달, 부족함을 반성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회견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일 “창당된 지 한 달, 부족함을 반성한다”는 공개 반성문을 쓰며 민생행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일로 창당 한 달을 맞는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한자릿수 대까지 떨어진 데 대한 대응으로 4·13 총선까지 당무에서 한발 비켜서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국민 속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에 참 많이 부족하다. 담대한 변화를 약속 드렸는데 변화를 보여 드리지 못했다”며 “새로운 모습을 약속드렸는데 새롭지 않다는 비판 앞에 너무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그것 밖에 못하느냐’고, ‘제발 좀 잘하라’고 질책하신다”며 “맞다.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수십 년 묵은 기성정당의 수백 분의 인력과 자원밖에 없어도 더 나은 정당을 만

들겠다고 약속드렸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더 질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우리 당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의 부름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패할 자유도, 포기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총괄본부장은 일문일답에서 “(총선 때까지 남은) 40일간 선대위나 최고위 참석 등 당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실제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며 “꼭 필요한 의결절차가 있는 경우만 참석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당의 지지율이 안 대표 지지율과 거의 비례하고 있으며, 안 대표가 (현재의 당 상황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며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은 곧 안 대표가 기대만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인 만큼, 안 대표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사원 모집

(주)나라판넬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제품, 판매조직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마인드를 기본으로 (주)나라판넬의 조직 문화를 느끼며 함께 성장할수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서 및 자격요건

근무지	모집부서	인원	자격요건 및 업무	제출서류
광주영업소	관리부	남 0명 여 0명	총괄관리자 사무보조	* 경력사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영업부	남 00명	국내영업 유경험자 건축영업 유경험자	
순천본사	관리부	여 0명	판매관리 및 사무보조	* 공통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부	남 0명	공무, CAD가능자	
	영업부	남 0명	국내영업 유경험자	
	생산부	남 0명 남 0명	단순제조원 산업기능요원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 전형절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접수기간 및 방법

- 마 감 일 : 2016년 3월 15일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31 (주)나라케미칼)
- 문의사항 : (주)나라 판넬 관리부 061)727-8058 (주)나라케미칼 관리부 061)381-8058

NARA

(주)나라판넬
(주)이오판넬
(주)나라 T.L.B
(주)나라케미칼